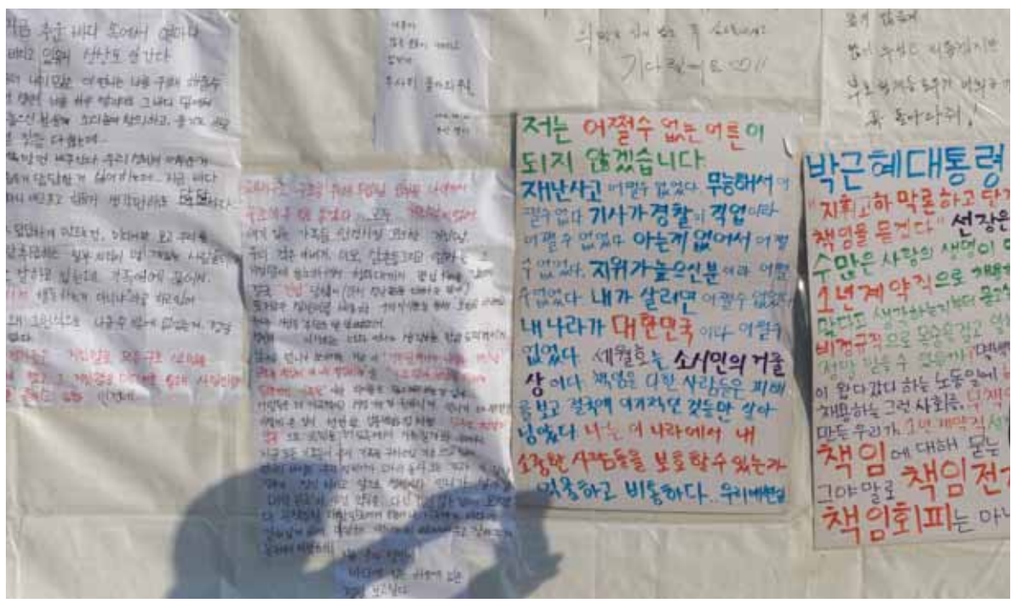
진도 체육관에 나붙은 '눈물의 대자보'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이 22일 진도 체육관 정문 앞에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고,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대자보를 붙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쩔수 없는' 어른 되지 않겠다
1년 계약직 선장에 수백명 목숨 맡긴 사회
책임 다한 사람만 피해 결국 이기적인 사람만 살아 남아

'동생아. 추운 바다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을 지 상상이 안간다."

"'어쩔 수 없는'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다."

22일 오후 진도군 실내체육관 앞 손글씨로 눌러쓴 대자보들이 나붙었다. 실종자 가족 등이 붙인 대자보로, 바다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비롯, 세월호 침몰 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함, 책임 떠넘기기, 우왕좌왕하는 대처 능력에 대한 비통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실종된 동생을 기다리며 언니가 쓴 대자보에는 "조금 더 나이 많은 이 언니는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너를 하루 빨리 바다 밑에서 구하려고 높으신 분들께 소리 높여 항의하고 울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라며 소시민의 울분과 안타까움을 썼다.

언니는 "우리 동생, 어두운 것 싫어하고 좁은 것, 답답한 것 싫어하는데…"라며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 지 생각만해도 답답하다"면서 동생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냈다.

무능·책임 떠넘기기
정부·구조당국에 일침

다른 대자보에는 200명 넘는 가족들이 여객선과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눈 뜨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은 '재난사고' 어쩔 수 없었다. '아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무능해서' 어쩔 수 없었다. '지위가 높으신 분'이라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어쩔 수 없었다로 이어졌다.

'세월호는 소시민의 거울상이다. 책임을 다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결국에 이기적인 것들은 살아남았다'고 써 기성세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이들은 "나는 이 나라에서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첫번째 대자보의 마지막에 던졌다.

다음 장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몇백 명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직업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사회를 만든 우리가, 1년 계약직 선장에게 책임에 대해 묻는 것은 책임 전가는 아닌지"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마지막 장에선 "내가 참담한 '세월'을 몇십년 더 보내려니 착잡한 마음이 끝까지 올라온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 없이 무사귀환 간절히 바랍니다'고 썼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금은 책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구조부터 해야 한다"며 울음을 터뜨린 뒤 팽목항에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겠다며 친구인 실종자 누나와 함께 떠났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임준표 수습기자 lotus@

115도 급회전 없었다…원인규명 새국면

해수부 항적기록 복원…45도 완만하게 돌아
항해사 등 4명 영장·자살 기도 기관사 체포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115도보다는 완만한 45도 정도로 각도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사고 선박이 115도가량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선 등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됐었던 만큼 이번 결과로 사고 원인 분석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측은 항적 기록을 분석한 결과, "변침(방향 전환)을 하다 더 돌았을 수 있는데 전타(조타기를 최대로 꺾는 것)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다" 면서 "조타기가 얼마나 돌아갔는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사고 다음날 공개된 AIS 자료 등을 통해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48분 37초에 오른쪽으로 115도가량 꺾은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졌고 3분 36초 뒤인 8시 52분 13초에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표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해수부가 48분 37초와 52분 13초 사이 3분 36초간의 항적을 복구한 결과, 48분 37초에서 36초 뒤인 49분 13초에 다시 항적이 잡혔다. 48분 37초는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 시각으로 이때 AIS가 정전으로 꺼졌다가 비상배터리로 복구된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49분 37초부터 49분 56초까지 19초간에는 오른쪽으로 45도 돌았다. 해수부 측은 "이 구간에서 외방경사(선체가 급회전하면서 균형을 잃고 침몰하는 것)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20초간에는 22도를 돌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선회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또 세월호 증축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선박 복원력 및 증축 과정에서의 문제점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해당 선원들에 대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의 적용이 가능할지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아울러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후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 손모(57)씨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본부는 2등 기관사 이모(여·25)씨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씨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이들은 실질심사 뒤 "처음에는 (배를) 복원하려고 했으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구조정 온 후에 선장이 물어봐서 승객들 퇴선시키라고…(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배가 더 기울어져 90도 가까이 됐을 때 선원에 대한 퇴선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했었다다.

합동수사본부는 아울러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변침·과적·조류 등 기상 상황 등을 반영,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선원들 바로 옆 구명뗏목도 작동 안시키고 탈출

세월호(6천825t급) 선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승객을 두고 어떻게 먼저 탈출했는지 정황이 확인됐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목포해경 소속 123정(100t급)이 오전 8시 58분 상황실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고 당시 위치에서 30km 떨어진 사고현장에 오전 9시 30분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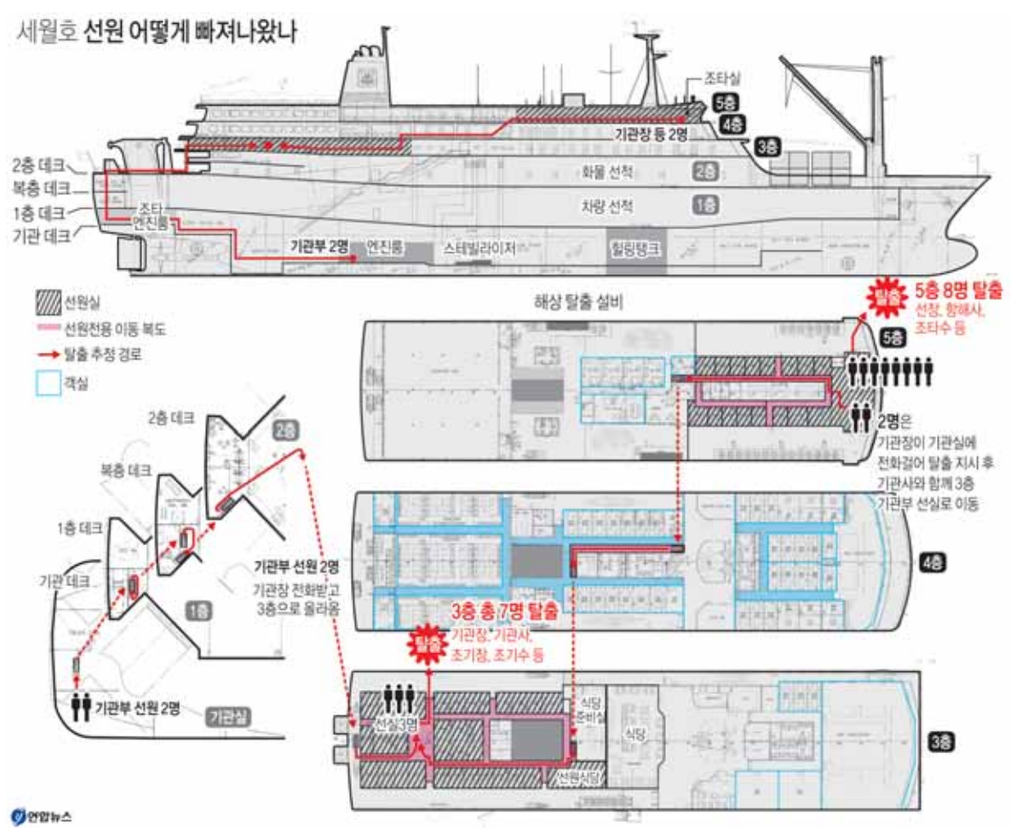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세월호는 이미 왼쪽으로 50~60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선원들은 오전 9시 38분 세월호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간의 마지막 교신 직후 선박 조타실에서 탈출을 시작했다. 오전 9시 28분 '선실이 안전하다'고 선내 방송을 한 지 10분만의 일이다.

선원들은 조타실 바로 옆에 25인승 구명뗏목(구명벌) 14척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작동시키지 않고 서둘러 123정에 올라탔다.

이들은 조타실에서 곧바로 빠져나왔고 대부분은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선원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경 123정은 오전 9시 50분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0명과 일반승객 등 총 80명을 구조, 1차 구조작업을 마치고 10시 10분 구조자 중 57명을 진도군청 급수선에 인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름방학 무안출발 ↔ 다낭 전세기 (VN항공)총6회
관광 다낭.호이안.후에 준특급 899,000~ / 특 급 1,099,000~
휴양 다낭/호이안 (호핑투어),노팁,노옵션 특 급 1,299,000~ / 초특급 1,499,000~
※불포함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유류할증료(130,000원)/기사,가이드팁성인40$)

5월 2일~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출발!!
터키 일주 9일 2,590,000~
그리스, 터키 9일 2,890,000~
이스탄불, 스페인, 포르투갈 9일 2,890,000~
이스탄불, 발칸 9일 3,190,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420,000/4월기준), 기사&가이드팁(90유로),싱글차지

아시아나항공으로 떠나는 북경 태항산
ALL포함 북경 태항산 5일 1,050,000

5/3일 단 하루!!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대만여행
대만 3박4일 1,230,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 발맛사지($30/30분), 101빌딩 전망대($35)

카멜리아로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펜션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카멜리아 299,000 출발일 :5/5,5/10,5/12,5/17,5/18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가족단위 8명이상 단독행사 가능 (별장 1동씩 드립니다),주말(목,금출발은 요금인상됩니다)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카멜리아 399,000 출발일 5/5,5/10,5/12,5/17,5/18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카멜리아 일본 큐슈 구중산 유후다케 등산 3일 149,000~
출발일 5/5,5/10,5/12,5/17,5/18
항공 일본고급 료칸및 특급호텔숙박!! 큐슈 3박4일 599,000~
항공 특급호텔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799,000~
※불포함 사항 : 국내수송, 유류세, 기사가이드팁

2014 제주 특별자치도 관광협회장배 친선골프대회!!
일 시 2014년 6월 18일(수) 13:00~ 참가비 325,000원 그린피36홀 + 골프텔 22평 1박(2인1실)
※포함사항 : 항공료, 그린피 36홀, 골프텔22평(1박,2인실), 조식 ※불포함사항 : 카트피, 캐디피, 중식, 석식, 현지교통비
대회개요
장 소 :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경기방식 및 진행 : 신페리오 / 샷건
대 상 : 국내 및 해외 골프동호인 시 상 : 우승, 메달리스트,준우승,장타상,근접상,행운상
인 원 : 160여명(도내 68, 도외 72, 해외 20)

무안-장가계 전세기 3/28~5/30일 [월/금 출발]
실속 장가계/천문산 4일 899,000
품격 장가계/천문산 4일 989,000
실속 장가계/천문산 5일 949,000
품격 장가계/천문산 5일 1,039,000
※불포함사항 : 중국단체비자(₩33,000), 유류세(₩100,000), 기사&가이드팁

무안-계림 힐링투어!! 4/9~6/4, 총 17회 매주 수, 토 출발
끝없이 펼쳐지는 산수 절경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계림!!
캐주얼 계림/양삭 4일 599,000~
클래식 계림/양삭 4일 949,000~
캐주얼 계림/양삭 5일 649,000~
클래식 계림/양삭 5일 999,000~
※불포함사항 :유류할증료(₩949,000/4월기준), 기사&가이드팁, 중국단체비자(₩35,000)

국내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석식,유류할증료(₩24,2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all포함 장급(함숙기준)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